

# ‘나’를 찍는 여성들은 나르시시스트일까?

●인류학자 황의진 ‘빈틈없이 자연스럽게’

카메라 피사체서 ‘촬영 주체’가 된 여성들  
거시적 맥락에서 살펴본 사진 문화의 양상



과시적인 취미로 여겨지곤 하는 젊은 여성들의 자기사진 찍기. 그 평범한 일상을 날카롭고도 다정한 시선으로 파고드는 책이 발간됐다.

인류학자 황의진의 ‘빈틈없이 자연스럽게’(반비판)다.

이 책은 ‘나’를 찍는 동시대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여성과 사진 기술의 관계를 탐색하는 문화비평서이자 촬영과 재현의 대상에서 주체로 변모한 여성들의 위치를 보다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포착하고자 한 결과물이다.

‘젊은 여성’임에도 사진 찍기를 즐기지 않는, 오히려 싫어하는 저자는 또래 여성들이 왜 그렇게 자기자신을 찍는지, 왜 그렇게 SNS에 공을 들여 업로드하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동시대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록함과 동시에 저자는 사진 기술과 여성들이 맺어온 관계를 통시적으로 돌아보며 ‘사진 찍는 여자들’을 구체적이고 복잡한 역사적 맥락 위에 위치시킨다.

‘사진 찍는 여자들’은 2000년대 최신기술과 함께 셀카족으로 처음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 카메라

를 자유롭게 다룰 수 없던 시기부터 사진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사진이 익숙한 존재로 막 자리 잡은 1920년대 당시 여성들은 모던걸이나 저임금노동자 등 피사체로 렌즈 앞에 세워지며 사진과 만나게 된다.

이후 가정용 카메라가 보급되고 여성들도 촬영의 영역에 들어섰지만 기술적인 측면과는 동떨어진 채 일상생활의 촬영을 전담하는 ‘주부 촬영자’의 역할에 머물렀다.

본격 카메라 대중화 시대가 도래한 뒤에 도 사진 테크놀로지는 남성이 독점하고 있었으며, 2000년대 디지털카메라의 광범위한 보급과 함께 여성을 피사체로 소비하는 경향은 대규모로 확산됐다.

여성들이 셔터의 주도권을 손에 넣을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이들을 ‘아름다운 피사체’로서 폭발적으로 이용할 수단을 제공한 바로 ‘기술의 발전’이었다.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은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인기를 끈 ‘싸이월드’와 셀카 문화, 핸드폰 카메라의 확산과 함께 부상했다. 이어 스마트폰의 보급은 ‘젊은 여성’이라는 구체적인 성별·연령 집단을 사진 촬영의 가장 적극적인 주체로 분명히 각인시켰다.

늘 휴대할 수 있고 스스로를 촬영하기에 최적화된 본인만의 카메라를 소유함으로써



이들은 매일의 습관처럼 자기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일상의 단면들을 수집한 자기사진 갤러리를 통해 ‘나’의 모습과 인간관계, 추억과 취향으로 구성된 자기만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구축해나간다.

이때 이들은 눈앞에 주어진 상황과 피사체를 향해 셔터를 누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단계부터 빈틈없는 연출 과정을 거치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능을 활용해 촬영한 사진을 수정하며 ‘나’의 이미지 형성에 깊이 개입한다.

저자는 촬영에서 보정, 전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본인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주관적으로 선별하는 이 사진들을 ‘독사진’이나 ‘셀카’와 구별되는 ‘자기사진’으로 명명한다. 이들이 ‘좋아서 찍는 사진’ 속 녹아든 즐거움과 재미, 슬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약용될지

도 모른다는 공포를 세심하게 읽어낸다.

동시에 과시 욕구에서 비롯된 산발적이고도 개인적인 행위로 여겨지는 자기사진 찍기가 사회와 기술이라는 거시적 배경과 맞닿는 지점을 추적해나가며 공동의 경험을 가시화해낸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역사적·문화적 지형도 속 이들의 좌표를 날카롭게 짚어낸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진은 촬영자이자 피사체인 젊은 여성들이 온전히 개인적인 의도를 담아 꾸미는 연출의 장구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기사진은 ‘나’의 역사적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부분적인 조각이자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생산된다. 이로써 촬영자 여성들은 자기 사진을 매개로 ‘나’와 ‘우리’를 발견해나간다”고 밝히고 있다. /최명진기자

## 새로 나온 책



▲파시어머?=고성만 저자  
인간이 느끼고 맞닿아 있는 다양하고 원초적인 슬픔을 단단하고 아름다운 무늬로 표현하는 고성만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한층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시편들을 선보인다. 이 따뜻함은 메시지가 아니라 간략한 상황이나 풍경, 이미지만으로 그려낸다. 이번 시집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경험들을 대수롭지 않은 듯이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산 넘어 바다 건너 우주로 달려가는 상상력이 있고, 생의 의미를 묻는 다양한 화두가 살고 있다. 소통 부재의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의미를 헤아리고 짐작해 보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을 추천한다. /시인의일요일·1만2천원



▲퍼센트%=안지현 저자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퍼센트(%)는 현실을 직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지만 한편으로 금방 휘발되기도 한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차고 넘치는 퍼센트 중 책은 40개의 주제를 선별하고, 그 통계를 기록했다. 어떤 것은 묵직하고 거시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자칫 지나치기 쉬운 미시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각각의 퍼센트 수치는 시간이 흐르면 바뀌어 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이 책의 저자 안지현은 책이 담고 있는 40개의 주제와 통계들을 통해 한국 사회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를, 그리고 퍼센트와 숫자가 채 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이데아·1만9천원



▲나의 얼굴=이충길 저자  
교통사고로 얼굴이 지워지는 사고를 당한 엄마가 비슷한 시기 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는 딸의 얼굴을 품고 새롭고 기이한 삶을 시작하는 여정을 진지하게 추적한 작품이다. 안면이식으로 딸의 얼굴이 엄마(나)에게 옮겨옴으로써 같이 달려오는 딸의 삶의 조각들, 소설은 딸의 죽음 이후 얼굴을 부여받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엄마를 추적하며 엄마의 삶과 딸의 삶이 겹치는 그 기묘한 순간들을 조명한다. 젊음과 늙음, 성장과 소멸, 삶과 죽음이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유해보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한다. /은행나무·1만7천원



▲봄=권지영 글, 최정인 그림  
봄이 오고, 아이의 눈에 봄바람에 살랑대는 나뭇잎이 보인다. 아이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마음을 속 빼앗긴다. 그래서 아이는 살랑대는 나뭇잎을 가만히 바라본다. 그러자 나뭇잎 사이로 드높은 파란 하늘이 보인다. 파란 하늘을 보자 아이는 파란 것은 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지고 그 궁금증을 따라가다 예쁜 봄꽃과 작지만 힘이 센 새새, 긴 강물, 흐르는 빗물, 짹짹 짹 흐르는 아쉬운 시간, 친구 등을 만나며 곳곳에 숨어 있는 봄을 만나게 된다. 봄이라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게 그리고 시간이나 친구, 우리 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단비어린이·1만5천원

## 광주젠더포럼, 어린이 도서전

# ‘내가 낫추는 지구온도 1도’

북카페 은세암서 기후위기 책 25권 전시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한 여성네트워크 조직인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젠더포럼이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광주젠더포럼은 성평등 광주 실현을 위한 의제 개발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구로 ▲여성일자리 ▲가족돌봄 ▲문화다양성 ▲성주류화 ▲여성인권 ▲기후정의 총 6개 분과로 구성됐다. 주제별 전문가와 연구자, 활동가가 의제개발 및 정책화를 위해 다각

적인 활동을 계획 중이다.

6개 분과 중 첫 번째 대외 행사는 기후정의 분과(분과장 유난이 광주과학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가 맡는다. 이들은 기후위기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 밀착형 프로그램 기후위기 도서전 ‘내가 낫추는 지구 온도 1도’를 진행한다.

어린이도서연구회 광주지부가 엄선한 기후위기 관련 도서 25권이 광주여성가족재단 북카페 은세암에서 2달 간 개최된다.

숲이 훼손되는 과정에서 숲속 동물들이



사라진다는 내용의 팝업북 ‘나무늘보가 사는 숲에서’, 더 이상 북극에 살 수 없어 지구로 살려 온 곰의 이야기 ‘30번 곰’, 지구를 위한 소등행사를 시작한 호주 이야기를 다룬 ‘지구를 위한 시간’ 등 어린이들과 동화책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만날 수 있다. (사진)

젠더포럼 기후정의 분과와 어린이도서연구회 광주지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도서 순회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책 읽어주기 및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 학교 등은 광주여성가족재단(062-670-053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